

개신교와 아동교육

- 개신교 아동예배 및 공과교육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제언 (감리교단을 중심으로) -

조 은 하

목원대학교

〈요 약〉

최근 개신교 교회교육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두 가지의 요소 즉 아동수의 감소와 아동교회교육의 침체에 대한 위기감의 원인을 교회적, 교육적, 문화적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개신교의 감리교단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 88개 교회의 아동 교회교육의 실태를 조사 파악하여 현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교회목회의 다양한 요소, 즉 예배, 교육, 기도, 선교, 봉사 등의 영역에서 예배와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아동예배의 구조와 과정에서 아동들의 참여 및 시대적 문화를 반영하는 시도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대다수임이 파악되었다. 또한 아동의 종교적 정체감 형성 및 사회적 정체감의 일치를 위하여 기독교 상징과 절기교육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또한 공과교육에 있어서 아동들이 흥미와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스쿨모형을 벗어나 놀이와 게임 등을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도입할 필요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분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신교 교회교육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교회교육을 교육목회의 차원에서 예배, 교육, 기도, 선교, 봉사의 차원들이 통전적이고 고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교육에 관한 신학적 통찰뿐 아니라 교육학적인 성찰을 통하여 아동들의 발달과정 및 종교적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아동 공과교육에 있어서 성경의 의미를 발견해 가면서 그들의 삶의 의미들을 다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교수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토론식 수업만이 아니라, 자기표현의 교육, 집단 상호작용적 교육, 자연 및 예술과 대면하는 교육, 실천적 교육 등이 병행하여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습자들의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 실천적 차원이 전인적으로 통합

되는 교육과정 및 교수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될 필요가 있다.

핵심 주제어: 통전적 교육, 아동발달과정, 성경의 의미, 삶의 의미, 통합적 교육과정

I. 들어가는 말

아동은 교회교육의 미래이다. 오늘날 아동교육의 성패가 교회교육의 미래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¹⁾ 최근 개신교 교회교육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중요한 성찰의 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아동수의 감소이며, 두 번째는 아동 교회교육의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다. 그러나 교회학교가 오늘날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국사회의 많은 기독교 가정의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교회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²⁾

또한 아동기의 시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 아동교육에 있어서 교회학교의 역할을 중대하다. 아동기는 수직적인 부모관계로부터 수평적인 친구관계와 사회적 관계로 폭을 넓혀가는 시기이기에 이 시기에 신앙교육도 이제는 가정에서 교회라는 넓은 신앙공동체의 장으로 확대되어 배우는 시기이다. 신앙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적 삶의 양식과 기술들을 배우고 문화들을 습득하는 시기인 것이다.³⁾ 따라서 아동기 때에 교회교육에서 행하여지는 신앙교육은 향후 아동들이 성장해 가면서 형성하는 자아 정체감은 물론 신앙유형의 양태 및 신앙적 삶의 문제를 구체적 상황 속에서 실천적 삶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돕는 신앙 성장 및 성숙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기의 교회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개신교 아동교육이 당면하고 위기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교회학교는 199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개신교 교회의 성장둔화가 서서히 시작되다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이와 함께 교회학교도 수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특별히 개신교 교회의 성장둔화의 현상보다도 훨씬 가파른 추세로 개신교 아동의 숫자는 하향곡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1) 조은하,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서 신앙을 배우는가?』, 『신학과 현장』(서울: 한들출판사, 2005).

2) 김청봉,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학교의 미래』(서울: 이레미디어, 2004), 14쪽.

3) John H. Westerhoff III, *Values for Tomorrow's Children: An Alternative Future for Education in the Church* (Pilgrim Press Philadelphia, 1971), p. 66.

◆ 전체개신교 인구수에 대한 전체 개신교 아동수의 비율⁴⁾

	1985	1995	2005
전체개신교	6,489,624	8,760,336	8,616,438
전체 개신교 아동수	890,760	936,614	887,360
비율 %	13.72%	10.69%	10.29%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신교 전체 교인수의 감소에 비해 아동의 감소추이가 더 가파른 것은 한국사회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출산률 감소로 인한 아동 절대인구 자체의 감소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신교 전체의 아동 수의 감소 현상은 동시간대 한국 아동 인구수 자체의 추이와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증감추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전국 아동 수 및 전국 개신교 아동 수 추이 비교

	1985	1995	2005
전국 아동수	4,864,336	3,906,591	4,030,013
전국 개신교 아동수	890,760	936,614	887,360
비율	18.31%	23.98%	22.02%

위의 표는 전국 아동수의 정체 현상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차지하는 개신교 아동수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 1995년에 전국 아동수는 10년 전인 1985년에 비하여 957,745명이 감소한 3,906,591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아동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1995년 전체 아동수의 23.98%를 차지하는 936,614명이 되었다. 그러나 10년 후인 2005년에는 전국 아동수가 다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전체 아동 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전국 아동수의 22.02%에 불과한 887,360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아동인구의 감소에 비교하여 볼 때, 개신교 아동 수는 훨씬 가파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양금희는 교회학교의 현장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첫째, 교육적 요인이다. 교육적 요인으로는 교사 및 교역자의 비전문성 및 교육철학의 부재 및 교회 프로그램의 목적 상실, 교회학교교육 시간의 절대부족, 교회예배의 역동성 부족, 어린이 신학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교회적 요인이다. 담임목사의 성인 중심적 목회, 교회자체의 영적 침체, 교회교육

4) 양금희, 『한국 아동 교회학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21세기 한국교회학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180-181쪽.

에 대한 관심 및 투자 미비, 교회의 사회적 지도력 상실, 교회자체의 폐쇄성 등이다.

셋째, 시대 문화적 요인이다. 세속적 물질적 문화의 팽배에 따른 신앙교육의 경시풍조, 교회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 인터넷, 게임 등의 등장,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입시 중심의 교육경향 등이다.

이러한 위기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논의는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⁵⁾

첫째, 기독교 아동교육의 본래적 기능의 회복에 관한 문제이다. 즉, 기독교교육을 통하여 아동들의 신앙적 성장과 성숙의 통전성 및 전인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배 및 공과교육, 봉사와 선교, 교제의 영역이 통합적으로 교육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독교 아동교육의 교육적 차원에 있어서 아동들의 발달과 종교적 관심에서 출발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동들의 종교적 질문과 종교적 언어, 또한 종교에 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발달양태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독교교육의 문화적, 사회적 기능의 회복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시대 문화적 유형에 맞는 교회학교의 교육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의 기초를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관심 기독교 시민의식, 기독교 역사의식을 아동기부터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교육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의 교육구조의 개선을 위해 기독교 아동교육의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현재 아동교육에 관한 실태 및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새로운 대안적 논의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감리교단을 중심으로 88개의 교회의 아동교회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중 교사 및 교육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장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개신교 아동교육의 미래적 전망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이러한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본 논문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감리교단의 88개 교회를 선정하여 아동교육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논문을 전개해 가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분포한 88개 교회의 아동교육 담당자로서 그들은 모두 2009년 현재 교회학교 아동

5) 손원영, 『기독교문화교육과 주일교회학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25-249쪽.

부 교육책임자, 또는 사역자로 봉사하고 있으며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제공된 주제별 질문에 따라 양적 연구의 방법을 통해 분류되었다.

Ⅲ. 분석결과

◆ 교회학교 교육 중 가장 중요한 요소에 관한 인식

예배	공과공부	기도교육	선교 및 봉사	코이노니아
54명(61.4%)	6명(6.8%)	15명(17.1%)	1명(1.1%)	12명(13.6%)

◆ 예배가 아동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별로 영향력 없다	무응답
55명(62.5%)	26명(29.6%)	0명(0%)	0명(0%)	1명(1.1%)

◆ 교회학교 예배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

설교	기도	봉헌	교제	공과공부
54명(61.4%)	11명(12.5%)	1명(1.1%)	18명(20.5%)	4명(4.5%)

위에서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또한 교육 효과 및 영향력에 있어서도 예배를 최우선적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요소는 설교를 통해 교육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 전문가 및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교육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설교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 및 참여는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 예배에 있어서 아동 참여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9명(78.4%)	18명(20.5%)	1명(1.1%)	0명(0%)	0명(0%)

◆ 예배 중 아동들이 흥미있어 하고 가장 집중을 잘하는 시간

찬양 및 율동	기도	설교	헌금	공과공부
57명(64.8%)	0명(0%)	20명(22.7%)	1명(1.1%)	10명(11.4%)

◆ 예배에 아동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순서

설교	기도	찬양	봉헌	봉사	기타
8명(9.1%)	21명(23.9%)	40명(45.5%)	8명(9.1%)	2명(2.2%)	9명(10.2%)

◆ 교회교육에 있어서 아동예배의 형식유형

와우 큐 키즈	메빅	윙윙	전통예배	혼합	기타
12명(13.6%)	0명(0%)	7명(8%)	26명(29.5%)	40명(45.5%)	3명(3.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 및 교육담당자들이 예배에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들이 흥미로워 하는 순서는 찬양과 율동시간이고 설교에 대한 흥미와 집중은 22.7% 만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의 순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순서 또한 찬양과 기도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들의 찬양과 율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동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순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지루하지 않으며, 대화할 수 있는 개방성이 있을 때, 흥미있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교시간에 대한 아동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방적 선포방식을 가지는 설교의 구조적 형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근의 예배방식, 즉 메빅, 윙윙, 어와나와 같은 놀이와 찬양과 말씀선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교사 및 현장 교육지도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메빅이나 윙윙과 같은 구조의 예배가 원형 그대로 실천되어지기보다는 전통예배와 혼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가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장의 교사들이 제안하는 예배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주제와 내용의 실체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아동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구성되어야 한다. ③ 주의산만하고 지루한 분위기를 개선하여 흥미있고 재미있으며 창조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④ 설교가 지루하지 않아야 한다 등이다. 또한 아동예배의 구조에 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입장에 있는 교사나 교육담당자들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 및 레크레이션이나 놀이 등으로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강조되었던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설교 중심의 개신교 아동예배에 있어서 절기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회학교 예배시 종교적 절기 예배(사순절, 부활주일, 추수감사, 성탄절 등)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여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3명(48.9%)	32명(36.4%)	12명(13.6%)	1명(1.1%)	0명(0%)

◆ 교회학교 예배시 사회적 절기예배(송구영신,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여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명(15.9%)	23명(26.1%)	29명(33%)	(20.5%)	4명(4.5%)

◆ 교회학교 예배시 개인적 절기(입학, 진학, 졸업 등) 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여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7명(19.3%)	46명(52.3%)	18명(20.5%)	7명(7.9%)	0명(0%)

◆ 아동예배를 위한 교육 상징(예를 들어 십자가, 배너, 그림, 조각품, 꽃 등)을 적절히 사용정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13.6%)	36명(41%)	28명(31.8%)	11명(12.5%)	1명(1.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의 아동교육에서 절기예배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종교적 절기는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85.3%를 차지하면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적 절기예배로 가면 상대적으로 42%로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 관하여는 ① 사회적 절기를 아동예배 안에 구조화 시키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프로그램 준비하기가 내용이 부족하다. ③ 담임목회자가 강조하지 않는다. ④ 아이들과 공감대를 찾기 어렵다. ⑤ 교회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기독교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신교 아동교육에 있어서 절기예배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대한 성찰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의 문제제기에서 아동교육의 위기에서 강조되어진 것처럼 교회교육에 있어서 문화를 어떻게 접근하고 형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어 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접근에 대한 논의는 종교를 가르침에 있어서 교리 및 성서의 이야기만을 강 의식으로 주입하는 학교형 교육이 아닌 신앙공동체안 문화를 공유하고 해석하며 새로운 기독교적 문화를 창조해 가는 신앙공동체형 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자신의 삶을 종교적으로 문화화(Enculturation)해감으로써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교회학교의 절기예배에 있어서 종교적 절기에 비하여 사회

6) John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90), 102-105쪽.

적 절기에 관한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낮음과 아울러 실제적 실천도 약 절반 이상밖에 되지 않는 것은 종교적 삶과 사회적 삶의 통합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교회교육에 있어서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교육적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공과공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 교회교육에 있어서 공과공부의 역할은 중요성 여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8명(43.2%)	41명(46.6%)	7명(8%)	2명(2.2%)	0명(0%)

◆ 공과공부를 위한 적절한 시간정도

20분	30분	40분	기타
40명(45.5%)	40명(45.5%)	10명(11.4%)	12명(13.6%)

◆ 공과공부를 위한 실제 사용시간

20분	30분	40분	기타
45명(51.1%)	22명(25%)	8명(9.1%)	13명(14.8%)

◆ 공과공부 교재 종류

교단 공과교재	자체 제작 공과교재	시중 공과교재	기타
26명(29.5%)	26명(29.5%)	22명(25%)	14명(15.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교육적 요소라고 인식한 공과공부의 상황을 보면 매주 20-3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동과 교사가 성경 공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교재로는 교단 공과교재와 자체제작 교재, 시중공과교재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특별히 개신교(감리교)에서 교단에서 만들어진 교재사용이 30%가 미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단교육전반을 디자인하는 교단 교육정책과 실제 현장과의 밀접한 상호교류 및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회 자체적으로 사용한 공과교재를 사용하는 비율도 교단공과를 사용하는 비율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각 교회의 지향성 및 상황에 맞는 교재에 관한 요구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별히 아동 공과교육을 위한 교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고 답하였다.

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가? ② 예배 주제와 연관이 있는가? ③ 삽화내용, 그림이나

내용이 쉽고 재미있는가? ④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 ⑤ 아동들의 눈높이 수준에 적합한가? ⑥ 1년 동안 진도를 나갈 수 있나?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배디자인과 아울러 흥미 및 동기부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교재 및 그러한 교수법이 가능한 교재를 요구하는 것을 나타냈다.

◆ 공과공부 진행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수법

강의식	토론식	그림 및 음악사용	놀이	기타
13명(14.8%)	45명(51.1%)	21명(23.9%)	6명(6.8%)	3명 (3.4%)

이러한 맥락에서 공과공부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수법을 보면 아동들의 참여를 구체화 시키고 상호작용을 통한 토론식 수업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이나 음악을 사용하여 아동들의 흥미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 및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과교육시 아동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 방법으로 ① 게임, 놀이, 영상을 통해서 ② 질문을 통해서 ③ 상, 달란트, 선물, 칭찬, 반별경쟁 등으로 참여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개신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형이나 메빅, 어와나와 같은 예배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공과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놀이’ 교수법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 공과공부 및 예배시 놀이를 통한 교수법 사용여부

자주 사용한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8명(9.1%)	49명(55.7%)	22명(25%)	9명(10.2%)

놀이를 통한 교육이 50% 이상 공과교육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한 교수방법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①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② 집중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③ 학습주제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③ 적극성이 높아지고 아동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④ 교사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놀이를 통한 교육을 시도하지 않는 교사 및 교육 사역자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토론식 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② 전통예배를 고수하기 때문이다. ③ 준비인원과 시간 장소 등 교육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④ 거룩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실시한 88개 교회의 설문조사를 보면 개신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아동교육에 있어서 예배 및 공과교육의 실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교회목회의 다양한 요소, 즉 예배, 교육, 기도, 선교, 봉사 등의 영역에서 예배와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⁷⁾

둘째, 교회 교육에 있어서 아동들의 흥미와 재미를 통하여 예배의 참여를 격려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예로 아동들이 자신이 참여하면서 예배에 동참하는 찬양과 율동 시간에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예배에 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배 중에도 설교시간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아동예배를 설계함에 있어서 전통적 예배와 현대적 예배의 요소들을 상황에 따라 개별요소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통합적인 의미와 구조를 개발하는 차원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아동예배를 통한 종교적 정체감 및 역할부분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정체감 및 사회적 기여, 사회적 삶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이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공과교육을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면서 그 형식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스쿨모형을 중심으로 토론식 교수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동들이 흥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놀이와 게임 등에 관한 필요요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섯째, 공과 공부에 관한 중요성의 인식에 비하여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교수방법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IV. 논의 및 결론

1. 개신교 아동교육의 창조적 전망을 위한 논의들

그렇다면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판적 성찰을 통한 창조적 변화의 가능성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아동교육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이론적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아동발달에 있어서의 종교성 발달의 특징

아동의 종교성 발달을 설명함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종교 심리학자 존슨(Paul E. Johnson)은 욕구 없이 종교적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인간생활에서 제 1차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며 특히 종교적 관심의 뿌리가

7) Maria Harris,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pp. 8-20.

된다는 것이다. 아동들의 의사소통의 도구인 울음, 또한 그 울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경험의 반복이 결국 신앙의 기초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에 대하여 적절한 반응 및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은 아동들이 신앙의 요람을 갖게 되는 기본적인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의 종교적 특성을 영아기, 유년기, 소년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2세의 영아기는 규칙성, 애정, 종교적 모범이 필요하므로 종교적 감성에 가까운 신뢰, 의존, 간청, 감사의 정서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3-6세의 유년기는 인격의 발견, 협조, 공유, 타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종교적 생활의 의의와 가치를 배우게 된다. 이 시기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과 만남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기중심성을 넘어설 수 있는 기초를 배운다. 또한 이기심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배운다는 것은 종교적 생활의 중요한 활동이다.⁸⁾

마지막 단계로 7-12세의 소년기의 어린이는 호기심과 탐구심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이 한다. 이러한 질문에 서로 고민하고 대화하며 의사소통을 통한 답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돕는 대화적 교육 및 참여적 교육이 요구된다.

아동의 종교적 사고의 발달에 관한 연구를 한 영국의 골드만은 그의 일정한 지능 단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종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동의 종교적 사고발달은 직관적 종교기(Intuitive Religious thinking), 구체적 종교기(Concrete Religious thinking), 추상적 종교기(Abstract Religious thinking)의 3단계로 발달한다. 직관적 종교기는 전종교적 사고단계라고 하며 사고의 전환이 부족한 7-8세의 시기이다. 이 단계의 아동은 종교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적, 정서적, 직관적, 예술적 사고와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종교교육을 하는 것이 적합하며 인지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정의적 차원의 접근이 학습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시기 아동들의 이해력은 경험으로부터 천천히 발달하기 때문이다.⁹⁾

구체적 종교기는 7, 8-13, 14세의 아동의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는 조작적 사고와 분류, 귀납적 사고논리가 적용되는데 그 범위는 구체적 상황이나 시각적 경험 혹은 감각적 경험에 한정된다. 어린이들의 다양하고 부정확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특정 나이로는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또는 어린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종교를 이해한다. 6살이 되면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기 시작하고 마술의 관념을 넘어서게 되는 데 이때가 하나님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다. 부모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경험을 통해 배우며 하나님과 부모를 동일시하는 점이 붕괴되기 시작하며,

8) Paul E. Johnson, *Psychology of Relig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59), pp. 83-89.

9) I.V. Cully, *Christian Child Development*, 홍철화, 이원화 역, 『아동의 기독교교육개발』(서울: 컨콜디아사, 1991), 92-93쪽.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는 목적성을 인식하게 된다.¹⁰⁾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의 하나님 이해는 성서이야기와 기도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살아있는 인간 관계성을 통해서도 발달한다.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절대화하기보다는 어떤 특정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필요하다. 자아상을 경험을 통해서 형성해가며 같은 또래와 어울리면서 갈등과 공포, 적대감과 수용 등을 배우며 용서를 체험하는 방식, 감정을 기탄없이 표현하는 법 그룹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지속해가는 방법 등을 터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터득해 간다.¹¹⁾

2) 아동의 학습방식에 대한 전통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성찰

아동들의 학습방식에 대하여 데이비드 엘킨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론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시도되어온 이론이라고 설명한다.

첫째, ‘지켜보기식(Watch Me)’ 학습 및 지도이론이다. 배우는 이의 요구와 흥미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바로 ‘지켜보기식’이론의 핵심이다. 아동의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격려하고 격려해주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어른들의 눈에 아이의 의미없어 보이는 행동들이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미심장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를 따라하거나 지켜보기만 하여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유아와 아동에게 ‘지켜보기식’ 학습법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들이 이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위에 또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더 나아가 아동들에게 교사들이 선택해준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닌 관심과 열정이 별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길 경우 학습자들은 따분하고 의욕이 나지 않는 교육과정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유아나 아동들처럼 의사소통 기술이 제한되어 있고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 재능을 오로지 행동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어린 스펀지’ 학습 및 지도이론이다. 아동도 어른들과 같이 빠른 속도로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린 스펀지’ 학습 및 지도이론에 기초가 된다. 이러한 논의를 지지하는 입장은 뇌성장연구의 결과들을 주요한 기초로 삼고 있다. 뇌성장은 생후 1, 2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성장이 빨리 이루어지는 시기인 ‘결정적인 시기’에 최대한 많은 것을 던져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해석이 실질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고 오히려 학습속도나 깊이를 결정짓는 것은 뇌세포 뉴런의 수가 아니라 그 연결정도이며 아동들이 형식적인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언어규칙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규칙은 이성의 시기에 도달한 후에 습득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

10) 위의 책, 94-95쪽.

11) 위의 책, 96-97쪽.

고 한다.¹²⁾

셋째, ‘자세히 들여다보기(Look Harder)’ 학습 및 지도이론이다. 어른들이 외부세계를 자신의 정신적인 활동과 독립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유아나 아동들이 감각을 통하여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자기만의 속도로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면상의 이미지보다 3차원의 물체가 훨씬 더 많은 학습경험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랩 웨어와 컴퓨터, 텔레비전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자세히 들여다보기’식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유아와 아동이 놀이에 기반을 둔 학습 경험을 통해 세상을 구축하고 도한 배워간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¹³⁾

이러한 맥락에서 데이비드 엘킨드는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적 활동의 하나로서 놀이를 통한 교육활동이 아동들의 경험과 앎을 통합하는 교육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즉,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사랑과 일과 놀이의 요소를 가지고 설명한다. 놀이는 인간이 스스로 세계에 적응하고 새로운 학습 경험을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의 놀이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발달한다.

첫째,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이다. 태어나서 생후 2년까지의 유아기는 놀이, 사랑, 일의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놀이가 가장 중심을 차지한다. 놀이를 통해 현실을 창조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일을 해낸다.

둘째, 초등학교 시기(만 6세-12세)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외부세계에 적응하는 일의 기질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읽기, 쓰기, 계산 측정 등의 기초적인 도구 기술을 배우며 이 시기 아동에게 교사는 무척 중요한 존재로 인식된다. 후기 아동들은 사회적 물리적 과학적 세계에 대하여 더 광범위하게 배우게 되는데, 규칙을 지닌 게임을 주된 놀이 형태로 삼고, 놀이 상대나 동료로 부모보다는 친구들을 선호하는 시기이다.

셋째, 청소년기이다. 사춘기의 도래와 함께 신체적, 심리적, 감정적 변화가 뒤따르면서 다른 기질들보다 사랑이 우선으로 작용하게 된다. 청소년기 초기에 진입하면 사랑기질이 중심무대를 차지하면서 일과 놀이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청소년 후기에는 놀이, 사랑, 일이 일종의 균형 상태를 맞는다.

넷째, 성인기이다. 신체적 성장기가 끝나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면서 놀이, 사랑, 일. 이 세 기질은 완전히 개별화되면서 놀이는 이제 주로 일의 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오락수단으로 여겨진다.¹⁴⁾

12) David Elkind, *The Power of Play*, 이주혜 역, 『놀이의 힘』(서울: 한스미디어, 2008), 130-139쪽.

13) 위의 책, 140-144쪽.

14) 위의 책, 15-28쪽.

3) 아동의 성서교수 방법에 대한 논의

도로시 지니 퍼니쉬 (Dorothy Jean Furnish)는 수 년동안 교사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성서교수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해 왔다. 그녀는 어린이들과 성경공부를 하는 목표는 그들이 성경에서 의미를 발견해 가면서 자신들의 삶의 의미문제들을 다루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성경중심의 교육과 학습자들의 삶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교육이 일치하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성경을 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삶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린이들의 경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그러한 의미가 탐색될 때에 성경의 사건이 지금의 사건으로 체화되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 성경교수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한 절이든 한 구절이든 아니면 한 이야기이든 본문의 실체를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다. 선택된 방법들은 그 이야기 속에 이끌려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 성경 속의 인물들과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맞추는 문제 또는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지적인 접근이 되는 것인데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는 있지만 성경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도인 학습자들에게 살아 있는 말씀으로 만들지 않는다.

다음 단계는 본문을 만나보는 단계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본문이 그들을 대면하게 하는 것이다.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학습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본문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씀으로써 즉각적이고도 개인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 또는 그룹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¹⁶⁾

2. 결론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신교 (감리교 중심) 아동교육이 비판적 성찰을 통한 창조적 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교회교육을 교육목회의 차원에서 예배, 교육, 기도, 선교, 봉사의 차원들이 통전적이고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⁷⁾ 특별히 예배를 가장 중요한 교회교육의 요소라고 인식하고 아동들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15) Dorothy Jean Furnish *Exploring the Bible with Children* (Nashville: Abingdon, 1975), p. 15.

16) 위의 책, pp. 36-85.

17) Maria Harris,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참고.

고 아동들의 참여는 찬양 및 율동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것은 아동들을 여전히 배풀어지는 예배에 있어서 수동적인 참여자로 존재하게 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동들이 직접 사회를 진행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어린이 신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신학자로서 어린이’ 개념은 기독교교육과정에 있어서 어린이를 교육의 대상 (객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교육과정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은준관 교수에 의하여 제시되는 ‘아동, 청소년 교회’의 개념은 아동들을 단순히 예배의 참여자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고도 주체적인 예배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아동들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예배 계획 및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배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¹⁸⁾

둘째, 아동교육에 관한 신학적 통찰뿐 아니라 교육학적인 성찰을 통하여 아동들의 발달 과정 및 종교적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예배의 종교적 요소들과 아울러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가 새롭게 구성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¹⁹⁾ 최근 많은 관심 속에 논의되어온 윙윙과 메빅, 어와나와 같은 놀이와 예배를 결합한 예배형식이 새롭게 시도되고 또한 현재도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배는 ① 놀이중심의 예배에서 놀이의 이미지가 전통적인 기독교 이미지를 대치시키는 위험성, ② 아동중심의 참여를 돕기 위해 구성된 예배지만 몇몇 교사에 의해 주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성, ③ 지나치게 서구화 되어 있는 용어 및 진행과정 등은 아동들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것은 서구적인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적 한계성 등의 논리적 한계성이 있다.²⁰⁾

더불어 교회교육현장에서 ① 예배 준비 및 진행시 많은 시간과 인원필요, ② 아동들의 흥미유발과 성서적 교육내용과의 연결성을 찾아야 하는 풍부한 성서적 내용을 놀이와 연결시켜야 하는 창의적 작업등에 대한 어려움, ③ 지속적인 게임 및 놀이의 개발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예배 전에 놀이를 통해 흥미를 이끌어 내는 등의 변형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놀이들이 그날의 예배의 주제 및 전체적인 형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배 전에 도입되는 놀이로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놀이를 성서의 내용들이 경험 속에서 반추되고 기억되면 의미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매개로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성서의 말씀과 현재적 삶을 통전

18) 은준관 교수는 “교회학교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2004년도 감리교회 20교회를 모델로 하여 ‘아동, 청소년교회’ 운동을 실시한 바 있다.

19) Jerome W. Berryman, *Godly Play: An Imaginat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HarperSanFrancisco, 1991), pp. 13-23.

20) 조은하, 『어, 메, 윙에 관한 논찬』, 2007년 기독교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참고.

적으로 아우르는 교육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놀이뿐 아니라, 연극, 음악, 미술 등의 교육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시대의 아날로그적 매체들의 사용도 아동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함께 흥미 및 재미를 유발하는 교육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아동 공과교육에 있어서 도로서 퍼니쉬가 제안한 바와 같이 성경의 의미를 발견해 가면서 그들의 삶의 의미들을 다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교수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하여 아동들이 성경의 실체를 만나고, 그 안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더 나아가 응답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토론식 수업만이 아니라, 자기표현의 교육, 집단 상호작용적 교육, 자연 및 예술과 대면하는 교육, 실천적 교육 등이 병행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²¹⁾ 아울러 학습자들의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 실천적 차원이 전인적으로 통합되는 교육과정 및 교수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될 필요가 있다.²²⁾ 이러한 논의의 구체성을 위하여 교단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정책위원회는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한 실제적인 교재들 및 교재를 교수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차원의 절기교육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절기교육은 아동들에게 기독교적 정체감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및 구체적 행동 양식을 교육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회이다.²³⁾ 또한 신앙공동체의 문화 및 삶의 양식이 축적되어 내려온 그리고 그 속에 역사와 정신이 함께 들어있는 절기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교육함으로 신앙적 문화화를 이루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²⁴⁾

21) Sara Little, *To Set One's Heart: Belief and Teaching in the Church*, 사미자 역, 『기독교교육교수방법론』(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88-106쪽.

22) Walter Wink, *Transforming the Bible Stud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참고.

23) Lewis Joseph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 1944), pp. 20-42.

24) Gwen Kennedy Neville and John H. Westerhoff III, *Learning through liturgy* (New York: Seabury Press, 1978), 31-55; John H. Westerhoff III, *A Pilgrim People: Learning through the Church Year* (Minneapolis, Minn.: Seabury Press, 1984)

참고문헌

- 김청봉,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학교의 미래』, 서울: 이레미디어, 2004.
- 손원영, 『기독교문화교육과 주일교회학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양금희, 『한국 아동 교회학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21세기 한국교회학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 조은하,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서 신앙을 배우는가?』, 『신학과 현장』, 서울: 한들출판사, 2005
- 조은하, 『어. 메. 똥에 관한 논찬』, 2007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학술대회.
- Berryman Jerome W., *Godly Play: An Imaginat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Harper: SanFrancisco, 1991.
- Cully I.V., *Christian Child Develope*, 홍철화, 이원화 역, 『아동의 기독교교육개발』, 서울: 컨콜디아사, 1991.
- Elkind David, *The Power of Play*, 2007, 이주혜 역, 『놀이의 힘』, 서울: 한스미디어, 2008.
- Furnish Dorothy Jean, *Exploring the Bible with Children*, Nashville: Abingdon, 1975.
- Harris, Maria,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 Little, Sara, *To Set One's Heart: Belief and Teaching in the Church*, 사미자 역, 『기독교 교육교수방법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 Johnson, Paul E., *Psychology of Relig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59.
- Sherril, Lewis Joseph,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 1944.
- Neville, Gwen Kennedy and WesterhoffIII, John H., *Learning through Liturgy*, New York: Seabury Press, 1978.
- Westerhoff III, John H., *A Pilgrim People: Learning through the Church Year*, Minneapolis, Minn.: Seabury Press, 1984.
- Westerhoff III, John H., *Values for Tomorrow's Children: An Alternative Future for Education in the Church*, Pilgrim Press Philadelphia, 1971.
- Westerhoff III, John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0.
- Wink, Walter, *Transforming the Bible Stud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원고접수: 2009년 5월 19일 1차심사: 6월 8일 게재승인일: 6월 19일

연구자 소개: 조은하

① 전공: 기독교교육학 / 소속: 목원대학교

② 관심영역: 기독교 영성교육, 미래세대 교육, 한국기독교 교육사

③ 주요논저: 『통전적 영성과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의 삶과 죽음』 (공저), 『각성, 갱신, 부흥』 (공저) 등

④ E-mail: eunhaedu@paran.com

Abstract

Protestant and Christian Education for Children: Focused on Children Worship and Studying Textbook in Methodist Church

Cho, Eunha

MokWo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e fabric of the protestant christian education needs to undergo a transformation by the church. Recent survey of public opinion on protestant christian education in church reflects the general sentiment of teachers about crisis of decrease in church education.

This study, on survey of protestant christian education in church, suggests that christian education for children should be critically examined in three areas in the present context of Christian education.

The first is the change from the battleground of substantialistic of understanding of worship for children and studying bible to the potential consensus of a theological view.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theology of children, Children should be taken part and make a contribution to the holistic worship.

The second is the movement from a split between religious identity and social identity to a growing unity of secular life and worship as modes through which persons experience and extend God's grace and righteousness in all life. In other words, the symbolic meaning of worship, rites and ceremony should be reinterpreted from a unitarian perspective, which accept both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hurch as a place for God's action, instead of proposing the dualistic concept of the world.

The third is rediscovering the power of the play from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education. The participation in the play leads children to redefine Children identity and provide a great opportunity to relate them to the profound resources of the Christian faith at each of the states of children development and to the major culture of our time.

Key words : holistic worship, religious identity, unitarian perspective, participation, play